

# 문화(文化) vs 무화(武化)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문화(文化)의 반대어쯤으로 야만(野蠻)이 있다. 역사서에 따르면 잔인스런 살육과 인권유린이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행돼 왔다. 바로 전쟁이고 야만이다. 야만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 또는 그런 종족”이라고 사전류에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명천지가 되었다는 근·현대에는 야만이 없나? 물론 아니다. 세계1차, 2차 대전이 대표적 야만이다.

문화의 대칭어로는 또 무화(武化)가 있다. 무력화(武力化), 무기화(武器化), 무장화(武裝化)의 준말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인류는 끊임없이 무화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탐욕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면서 야만을 행해 왔다. 원시시대 돌도끼는 짐승을 잡아먹는데 유용했을 것이다. 또 다른 종족의 침략을 막는데도 쓰였을 것이다. 드디어 살인에도 사용했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몇 십번 몰살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소련과 미국이 바로 한반도에서 으르렁 거렸고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치하고 있다. 바로 모두 핵을 소유한 무화(武化)국가들이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 그만큼 무력화도 급격히 발달했다. 유럽 열강은 신항로 발견 이후 대륙의 곳곳을 침탈했다. 피의 제국주의시대였다. 원자재를 싼 값에 약탈하고 상품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해적이 따로 없었다. 식민지를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 그들끼리 피나는 전쟁도 불사했다.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그 후 네델란드가 등장하고 영국이 나타났다. 프랑스 역시 질세라 나섰다. 그래서 한 때 영연방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독일도 빠질 수 없었다.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러시아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북부를 차지했다. 필리핀은 스페인, 일본, 미국이 차례로 지배했다.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세계 1차대전을 일으켰다. 또 히틀러는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 함께 세계 2차대전을 일으켰다. 나치는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대량 학살하고 일본은 조선인을 생태실험의 도구로 삼았다. 비뚤어진 무화(武化)를 통해 인간을 비극으

로 몰아붙였다.

기업도 왕왕 착취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121년 코카콜라의 탐욕·거짓을 벗기다’는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레이몽의 저서다. 저자는 초창기 코카콜라의 성공이 마약인 코카인 성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 지원도 서슴치 않았던 행태도 고발했다. 세계최대 스포츠용품 업체인 미국의 나이키는 노동착취 등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월드컵. 그 이면에는 하루 14시간을 꼬박 어두운 조명아래에서 축구공을 깎고도 17센트(한화 300원)밖에 못받는 어린이가 있었다.

한국의 어떤 자동차회사는 늘 노사분쟁으로 얼룩져 있다. 전쟁과 야만이 설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찍하면 ‘공격적 경영’이니 한다. 공격해서 누구를 무찌르고 죽이자는 것인가.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약자인 중소기업 협력회사들을 보듬어 안는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만연한 군사문화를 극복해야겠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7일 (금)	10월 30일 (월)	10월 31일 (화)	11월 1일 (수)	11월 2일 (목)
미	달	러	(USD)	1357.10	1352.30	1352.80	1349.60	1356.90
일	본	엔	(JPY)	902.42	903.43	907.04	892.39	900.64
영	국	파	운 드	(GBP)	1646.84	1638.11	1645.82	1640.10
캐	나	다	달 러	(CAD)	981.91	974.98	978.52	973.04
홍	콩	달	러	(HKD)	173.53	172.89	172.98	172.50
중	국	원	(CNH)	185.18	184.42	184.51	184.29	185.02
유	로	화	(EUR)	1433.50	1428.16	1435.86	1427.88	1435.46
호	주	달	러	(AUD)	858.64	856.88	861.60	855.65
싱	가	폴	달 러	(SGD)	991.20	986.86	991.17	985.6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3.54	283.00	284.05	283.26
							283.26	284.41